

## 대학생의 진로선택을 위한 역할 모델의 우연 경험 연구 : 청년 기업가의 경력 성공과정을 중심으로

임윤서<sup>†</sup>

동국대학교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인 비즈니스에서 직업적으로 성공을 이룬 젊은 역할 모델을 대상으로 경력선택과 이행 과정에서의 우연 경험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CQR)을 사용하여 청년 기업가들의 우연 경험에 대한 심층적이고 깊이 있는 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20대에서 40대 초반의 청년 기업가 10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결과, 역할 모델들은 새로운 경력을 선택하고 현재의 성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우연 경험을 체험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이들은 경력 전환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으나 개인 역량과 주도적인 준비와 실행력으로 이를 극복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이들은 경력 전환과 성공을 이루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주도성을 적극적으로 발휘하고 있으며 자신의 선택에 대한 만족도와 자부심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신들이 겪은 우연 기회에 대한 성찰을 통해 대학생들이 안전한 진로에 만족하거나 사회적 시선에 얽매이지 말고 다양한 일을 경험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우연과 조우할 수 있도록 도전정신을 독려하였다.

\* 주요어: 역할 모델, 경력전환, 우연이론, 대학생 진로, 스타트업

---

<sup>†</sup>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동국대학교 역량개발센터 강의초빙교수,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461, Tel: 010-2715-2310, E-mail: shao02@naver.com

## 서 론

### 1. 문제제기

인간의 일생은 단선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무수한 우연과 사건들이 만들어 내는 변수의 집합체와 같다. 여러 가지 사건의 전환으로 구성되는 인생의 과정들도 동일한 단계에서는 큰 변동 없이 지나갈 수도 있다. 그러나 인간의 발달 과정이 몇 개의 전환적 단계로 구성된다 고 할 때 각 단계에는 그에 적절한 계획과 경험, 학습 등이 요구된다. 대학생은 생애 발달단계로 볼 때 후기 청소년기에 속한다. 이 시기 생애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고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을 이루며 장래의 교육적, 직업적 진로를 결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자신의 미래와 진로를 결정하기 위하여 자신의 역량을 점검하게 되고 자신의 가치관을 정립해야 한다(김창민, 강희양, 김동원, 이난, 이훈정, 정필영, 최혜란, 2011). 또한 현실적 직업선택의 실천단계로 직업선택을 위해 필요한 교육과 경험을 쌓고, 직업목표를 설명하며 이를 구체화하고 정교한 계획을 세우는 단계(Ginzberg, 1972; Super, 1953)로서의 탐색도 필요하다. 이중에서도 특히 어떤 직업과 진로를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는 인간관계,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치관과 태도, 정신 및 신체적 건강, 가족관계 등 생활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끼치는 궁극적으로 한 개인의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진로설정이라는 발달과업을 이루기 위해서 대학생 시기 동안 자신의 성격, 흥미, 적성 그리고 자신의 현재 환경 등을 분석하고 이해하여 자신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진로를 선택하도록 준비해야 한다(박희인, 구자경, 2011).

Gati, Krausz와 Osipow(1996)는 대학생들의 진로미결정의 주요한 요인으로 동기의 부족을 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경우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진로미결정은 정보의 부족, 진로와 관련된 자기이해의 부족 등과 같은 인지적 요인 뿐 아니라, 정서적 불안정성과 같은 비인지적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기학, 2003).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다양하다(Blustein, Phillips, Jobin-Davis, Finkelberg, Roarke, 1997; Holland & Holland, 1977). 대부분의 한국 대학생은 진로 문제로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체계화한 자료나 연구물은 찾아보기 어렵다. 대학생들의 진로문제는 일반적으로 학업문제와 함께 분류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되지 못하고 있다(장미화, 임현술, 최원상, 2005). 대학생들의 문제 대부분은 '학업 및 진로'가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 하였으나 진로문제를 학업문제와 같은 분류로 생각하여 진로문제만의 독특한 특성을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제경, 문승규, 김현진, 염미영(2009)은 대학생이 진로상담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 연구한 결과, 대학생들은 주로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정보(34.8%)'에 대한 도움을 가장 필요로 했고, '진로와

관련된 나의 이해(34.5%)와 '결정된 진로에 대한 준비행동 및 실천(17.1%)', '진로에 대한 의사 결정(13.4%)'에 대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대학생의 진로결정에서의 어려움은 학업이나 대학생활 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이제경 외, 2009) 최근에는 대학생들이 진로와 관련하여 겪게 되는 스트레스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대처 방식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한 연구들도 수행되고 있으며(박선희, 박현주, 2009),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의 경우도 대부분이 자신의 개인적 특성과 현실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이상적인 결정을 한 경우가 많다는 연구 결과들도 보고되고 있다(김영경, 2008; 선혜연, 이제경, 김선경, 2012).

대학생의 진로결정 과정과 개입 요인을 근거이론방법으로 탐색한 임은미(2011)의 연구에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과정 핵심범주로 '성공과 지지를 바탕으로 결정해 나감'을 꼽았다. 여기서 '지지'라는 것은 진로결정 및 준비과정에서 경험하는 관계와 지속적인 환경적 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진로결정 과정에서 부모와의 진로선택 갈등여부, 소속전공과 학과에 대한 자부심, 지속적인 환경적 지지, 사회적 역할 모델 등이 주요한 개입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부모와의 애착, 가족의 지지, 사회적 역할 모델 유무 등과 같은 심리사회적 변인들은 많은 대학생들의 진로와 관련된 고민의 원인인 동시에 진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입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한국사회는 '관계'를 중시하고 정서적 친밀성을 강조하는(박수길, 이영희, 2002; 선혜연, 김계현, 2008) 경향이 많으므로 대학생들이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긍정적 역할 모델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 제시가 중요할 수 있을 것이다.

Lockwood와 Kunda(1999)는 긍정적인 역할 모델의 성공적인 결과는 특정분야의 성공적인 열매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다른 일들에 대한 성공소망을 가지게 되므로 성공을 위한 강건한 정신적 동기를 부여한다고 보았다. 특히 역할 모델이 성공하기 까지 겪게 되는 다양한 인간의 삶은 불확실하고 한치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 수반된다. 이 과정에서 인간들은 예측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학습을 통해 성장한다. 계획된 우연이론(Planned Happenstance Theory)은 바로 삶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우연성'에 대해 주목한다. Krumboltz(2009)는 개인이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무엇을 학습했느냐에 따라 진로선택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회학습이론의 확장으로써 우연이론을 제시하였다(장원섭, 김지영, 2013).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진로 탐색에서 최근 가장 관심은 높으나 다양한 장벽이나 심리적 위축으로 도전적 시도를 하지 못하는 분야인 창업과 비즈니스 영역에 대한 현실적 제사가 절실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관련 분야 실제 역할 모델의 성장과정과 중요한 진로 선택 경험 사례에 대한 연구를 통해 대학생들의 진취적 도전을 돕기 위해 시도되었다.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인 비즈니스에서 직업적으로 성공을 이룬 역할 모델을 대상으로 그들의 직업 선택에서 나타난 다양한 실천적 경험을 탐색하고자 한다. 기존에 역할 모델을 다룬 연구는 주로 역사적 인물이나 언론 매체에 등장하는 유명한, 정치인 등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역할 모델들은 이상적 측면에서 의미 있는 내용의 전달자일 수는 있으나 실제 대학생들이 진출하고자 하

는 현실 영역과 동떨어진 경우들이 한계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들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진로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역할 모델들은 어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지금의 성공을 이룰 수 있었는가? 둘째, 자신의 진로 경로에 영향을 준 우연적 사건이 있었는가? 셋째, 우연적 사건의 내용은 무엇이며 그로 인하여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였나? 넷째,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어떤 의미와 성찰점을 부여하고 있는가?

## 2. 이론적 배경

### 가. 대학생 진로에 있어서 역할 모델

역할 모델에 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정리해 보면, 대부분 역할 모델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국외의 선행 연구에선 대표적으로 사회학습이론에서 역할 모델과 진로와의 관련성이 일찍이 연구되었다. 이 이론은 인간이 타인을 관찰함으로써 습득해야 할 사회적 기술과 적합한 행동요소들을 배우게 되고 이러한 행동들이 자기화 되면서 사회 속에 잘 적응하거나 활동이 재창조 된다고 하였다(Bandura, 1986). Hackett와 Betz(1981)는 이 연구를 진로발달이론으로 발전시켰는데 사람들은 관찰을 통하여 진로 결정과 진로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들은 성공한 역할 모델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예전에 시도해보지 않았던 과제들에 대한 개인의 자기효능감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하였다(Nauta & Kokaly, 2001). 즉, 역할 모델이 성취해내고 이뤄내는 과정을 보면서 자신 또한 역할 모델처럼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증진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특정 직업분야 내에서 성공한 역할 모델을 관찰한 학생들은 자신 또한 이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과 해당 분야의 진로에 대한 선호수준이 증가하였다(Scherer, Brodzinski, & Wiebe, 1991). 역할 모델 연구에 있어서 최근 사회인지 진로이론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개인·심리적 요인들 외에 진로장벽, 지지집단과의 관련성 등과 같은 맥락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개인의 흥미, 자기효능감, 결과 성취에 영향을 줌으로써 진로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Lent, Brown, & Hackett, 1994; Quimby & DeSantis, 2006). 이 외에도 역할 모델은 개인의 가치관과 규범적 측면에서도 영향을 끼치며(Nauta & Kokaly, 2001) 다중역할의 성공적인 수행 여부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Nauta, Epperson, & Kahn, 1998). Gibson(2004)에 따르면 역할 모델은 개인에게 사회적 비교 모델을 제공하며, 개인은 자신의 상황과 경험을 역할 모델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미래에 성취할 이미지를 정립한다. 또한 역할 모델들은 직업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은 대학생들의 자기 효능감을 높여줄 수 있는 것(Nauta, Epperson, & Kahn, 1998)으로 보고되었다.

역할 모델은 특정직업 분야 중에서 성공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삶을 관찰하는 것은 대학생들에게 자신의 미래 직업에 대한 선호도 및 결정을 촉진할 수 있다(Scherer, Brodzinski,

& Wiebe, 1991; Lent, Brown, & Hackett, 1994; Radu & Redien-Collot, 2008). 또한 역할 모델은 대부분 성공한 인물들이 많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정의되는 데 선행 연구들을 보면 역할 모델을 특정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삶·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Basow & Howe, 1979), 또한 살아가는 과정에서 모방하고 싶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Pleiss & Feldhusen, 1995)으로 정의하였다. Nauta와 Kokaly(2001)은 다양한 영역에서 존경을 받거나 특정한 상황과 현장에서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영향을 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역할 모델로 정의했으며 이들은 사람들의 기대치에 가까운 인물들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역할 모델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고민할 때 직·간접적인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고비가 있거나 커다란 실패의 시기에도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위에 언급한 연구들이 기본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역할모델의 특징은 바로 '동질성'이다. 동일시 이론의 기본적인 원리는 사람은 대개 개인적인 성격, 특성, 배경환경, 인종, 성별 등에서 자신과 유사하다고 지각되는 사람을 모델로 삼는다는 것이다(Erkut & Mokros, 1984). 즉 자신과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역할모델이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경력을 쌓아가는 모습을 통해 나 또한 이러한 장벽과 갈등을 이겨낼 수 있다고 더 잘 받아들여지게 된다. 때문에 자신과 유사한 점이 많은 역할 모델의 성공은 진로선택 시 더 큰 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역할모델에 대한 연구들 가운데 이런 동질성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 연구들이 많이 있다. 많은 연구에서 사람들은 성, 인종 등이 자신과 유사하여 동일시하기가 용이한 역할모델을 찾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Bandura, 1986; Hackett & Byars, 1996; Karunanayake & Naut, 2004).

국외의 선행 연구가 다양한 반면, 국내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김재원(2002)은 역할 모델이 있는 대학생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방송 매체와 교과서인데 실제 역할 모델이 있더라도 자신의 진로와 관계없이 인생 계획을 설정하는 성향이 있다고 보았다. 안나영(2004)은 대학생이 성공한 직업인을 역할 모델링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성공한 직업인이 가진 개인·사회적, 경제력, 전문성의 세 요인을 대학생들의 직업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추출하였다. 김병숙(2006)은 역할 모델을 진로대리학습이 가능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역사 속 인물들을 여러 분야로 나누어 분석하여 이들을 통해 청소년들이 심리적인 불안과 자기 개념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진로 효능감 및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게 한다고 보았다. 안진아(2008)는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역할 모델 및 다중 역할 계획에 대한 태도와 진로 포부의 관계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여대생들이 역할 모델로부터 진로와 관련한 지지를 얻고 모델링을 할 대상이 있을 때 진로 포부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분석하였다. 도승이(2009)는 사회인지 진로이론을 활용하여 여성 공학도인 공과대학 여학생들이 남성 중심의 환경 속에서 역할 모델을 찾는 경험이 학업 동기를 매개로 그들의 진로관련 동기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밝혔다. 정명희(2010)는 기독교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들이 역할 모델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연구한 결과, 일반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

보다 기독교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이 역할 모델이 더 많이 존재했고 다양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밝혔다.

최근에는 대학생의 창업과 역할 모델의 관계성을 분석한 연구가 제출되고 있다. 이수지(2012)는 청년 대학생의 창업 참여도가 자기 효능감과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역할 모델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였고 이를 통해 역할 모델은 조절 변수로 작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서동철(2014)도 역할 모델이 대학생에게 자신감과 자기 효능감을 매개로 창업의도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역할 모델과의 직접적 교류 및 경험이 많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아지고 창업의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실증 분석하였다. 진주형과 박병진(2014)은 대학생들에게 가족과 지인의 역할 모델이 노출 되었을 경우 창업의도와 어떤 인과관계를 갖게 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역할 모델이 진로발달과 직업 선택에 중요하다는 인식에도 불구하고(Lent et al., 1994), 역할 모델이 가진 성공 요인들에 대한 정의, 역할 모델이 진로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는 분명치 않다(Pleiss & Feldhusen, 1995; Nauta & Kokaly, 2001). 역할 모델의 영향력을 보다 구체화한 정의나 역할 모델의 직업 영역에 대한 고찰도 필요하다. 즉, 위에서 언급한 역할 모델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은 다소 추상적인 측면이 많다. 현실의 급격한 산업 변화와 대학생들이 진출할 직업 세계의 변동, 신생직업의 출현 등을 감안한다면 다양한 직업군을 세분화하여 그 영역에서 성공한 역할 모델에 대한 연구를 보다 확대해야 할 것이다.

#### 나. 경력성공 과정에서의 우연과 기회요소

1990년대를 전후하여 직업 상담 분야에서는 개인들의 삶에서 주관성이 가진 의미들의 중요성을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Williams, Soeprapto, Like, Touradji, Hess와 Hill(1998)의 연구에 따르면 상담영역에서 자기 전문성을 구축했던 여성 상담 심리학자들이 우연적 사건을 통해 자신의 직업 경로가 변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맞을 수 있었다고 보았다. 이는 Budescu와 Bruderman(1995)가 성공한 사람은 우연과 직관을 과소평가하며 자신의 능력과 기술의 영향을 과대평가한다는 기존의 연구와 상반되는 것이다. 즉, 인간의 삶은 예기치 않던 사건이나 기회 등의 우연성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모든 종류의 사건들은 ‘기회’와 ‘학습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계획된 우연이론의 개념적 틀은 계획되지 않은 사건들을 학습의 기회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한다(Mitchell, Levin, & Krumboltz, 1999). 이러한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Krumboltz(2009)는 사회학습이론을 기반으로 한 ‘우연’을 이론적으로 정립하고자 시도하였고 그 결과 ‘계획된 우연’이라는 개념과 ‘우연학습이론’으로 제안하였다.

Krumboltz(1996)는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개인이 만족스런 삶을 창조할 수 있는 학습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는 선택하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과 환경에 대한 학습을 강조 하는 것이며 선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학습이 중요하다는 것이다(Sharf, 2006). 그러므로 계획된 우연은 계획되지 않은 사건들을 배움의 기회들로 전환시키고 창

조하는 과정을 포함하기 위한 직업 상담에서 확장된 개념적 틀이다. 계획된 우연의 강한 구성 요소는 가능한 기회를 발견하고 생산해 내는 개인의 행동을 촉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진로에는 상황적으로 예측 불가능하거나 비의도적인 사건들이 영향을 미친다. 관련한 국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aplow(1954)는 사람들이 겪는 실제 우연적 사건들은 각 개인이 인정하는 것 이상으로 그들의 진로 결정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았다. Hart, Raynor와 Christensen(1971)은 전문직, 기술직, 반 숙련직의 직업입문과정에 관한 연구에서, 숙련직의 소수만이 계획을 통해 직업에 입문할 뿐,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연적 사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Baumgardner(1977)는 대학을 이제 막 졸업한 학생들의 진로 결정을 연구한 결과 72%의 졸업생들이 부분적 혹은 전적으로 예상치 못한 사건의 영향에 대해 언급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Miller(1983)는 직업선택과정에서 합리적이고 이성적 진로계획이 언제나 가능하거나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직업선택과정에서 발생하는 우연한 일들을 제대로 바라보는 시각이 좋은 결과를 얻게 할 것이라고 제기하였다. Bandura(1986)는 우연적 사건의 영향은 사건 자체 보다 사건과 인간 간의 상호작용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루었다. Williams 등(1998)의 연구에서도 우연적 사건은 여성들의 진로 경로가 변화하는데 있어 중요한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들의 자기 개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Bright, Pryor와 Harpham(2005)의 연구에서도 고교생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결정에 영향을 준 요인을 연구한 결과 70% 가까이 우연히 발생하는 사건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진행된 우연적 사건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송병국(1998)은 성인 노동자 270명을 대상으로 직업선택과정에서 우연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는데 이들 중에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했던 직업에 취업한 경우는 고작 18%에 지나지 않았고 59% 이상이 우연적 요인들에 의해 직업을 선택해 왔음을 밝혀내었다. 손은령(2009)은 개인이 진로와 관련된 모든 변인들을 통제할 수 없다는 인식이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행동들을 준비하는 동기가 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한국의 상담현장에서 우연에 대한 대안적 관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박현영(2011)은 275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를 결정할 때 우연적 사건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69.8%가 진로 결정시 우연의 영향을 받았음을 분석하였다. 황현덕(2011)은 고등학생 370명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진로포부, 진로준비행동, 진로관련 계획된 우연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연구 결과 세 변인간의 관계 모두가 계획된 우연과 관련성이 높았음을 분석하였다. 손은령(2012)과 안윤정과 오현주(2012)의 연구는 직업 상담사라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직업 성취과정에서 우연의 내용 및 영향과 우연의 의미, 그 과정에서 나타난 낙관성, 유연성, 호기심 등의 우연 요소를 실증적으로 탐색하였다.

이동혁, 황윤미와 정지희(2012)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우연학습이론에서 제시한 계획된 우연을 만드는 기술에 대한 연구 중 낙관성,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으며

모호한 환경에서도 긍정성을 가지는 자세의 중요성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상희, 신상수(2012)는 개념도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대학생들이 진로선택에서의 우연요인으로 예상치 못한 상황발생에 의한 다양한 진로 선택 경로들을 도출하였다. 신순옥, 박서연과 이상희(2015)는 전환적인 삶의 국면을 가진 코칭 및 상담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진로 경험에서 개인의 우연 경험과 의미를 탐색하고 진로 선택 과정 속에 우연 상황이나 사건을 기회로 만드는 내적 특성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국내 연구들은 대체로 상담분야나 고교생, 대학생 등의 진로 적응성, 포부 등과 연관된 것이 많아 우연 이론에 근거한 연구의 대상과 범주가 다양하고 충분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많다. 진로와 경력 성취 과정에서 우연의 영향력을 보다 깊이 있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상과 직업군에 대한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최근 연구 중 장원섭 외(2013)는 이런 연구의 한계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명장'으로 선정된 전문직 장인들이 어떻게 그 지위까지 성장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우연히 어떻게 필연으로 작용하였는지를 직업 입문과정에서부터 명장의 위치에 오른 성취 시점까지를 다루었다. 이 연구는 기술 분야의 명장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성장 과정 속에 우연의 역할을 살펴보았지만 앞으로 이 분야의 연구들은 더욱 다양한 직업인들의 경력 경로에서 발견되는 우연의 역할을 관찰 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직업군 중에 하나인 창업과 비즈니스영역에 있는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사업적 성장 과정과 경력 성취과정에서 우연성의 다양한 영향력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 방 법

### 1.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역할 모델로 선정된 청년 기업가들의 경력 성공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인 CQR(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을 사용하였다. 깊이 있는 연구문제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선정된 역할 모델의 경험과 삶의 경로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하므로 질적 연구방법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CQR은 질적 연구의 주관적 탐구와 양적 연구의 객관성과 타당성의 문제를 고려한 절충적인 방법론이다(Hill, Thompson, & Williams, 1997). 절충적인 방법인 만큼 분석의 깊이와 해석의 풍부함을 전제로 연구대상자의 인터뷰 내용을 보다 명료하고 맥락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Hill, Thompson, Hess, Know, Williams & Ladany, 2005). 본 연구에서는 CQR에서 제안된 지침에 따라 대략 다음과 같은 연구 절차로 진행되었다. 이 연구에는 역할 모델을 선정하고 직업인 인터뷰를 진행한 10명으로 구성된 대학생들과 연구자 외에 2명의 전문 감수자가 참여하였다. 1명의 감수자는 직업상담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이며 우연이론을 연구한 경험이 있다. 또한 연구자와 함께 CQR을 활용한 연구 2편을 진행하였다. 또 1명의 감수자는 교육심리학 박사과정 중에 있는 대학원생으로 본 연구 실시를 위해 연구자가 지원을 요청하여 대학생 관리와 인터뷰 지원을 담당해 주었다.

연구자와 2명의 감수자는 각자의 관점에서 인터뷰 주제를 분류하고 코딩하는 과정을 거쳤다. 상호 내용교환과 토론을 진행함으로써 방법론적 삼각측정(methodological triangulation)을 시도하여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대학생 인터뷰 팀은 자신들이 평소에 주목하고 있던 분야의 기업가들을 선정하고 노력 끝에 역할 모델과의 인터뷰에 성공한 학생들이다. 대학생들은 CQR에서 제안된 대로 먼저 각자 면접 자료를 읽고 분석한 후 연구자와 함께 모여 토론하고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질문지를 구성하는 과정을 거쳤다. 질문지 구성을 위해 선행연구(Hill et al., 1997; 손은령, 2012; 진주형, 박병진, 2014; 신순옥 외, 2015)에서 제시된 다양한 질문지의 형식과 내용을 조사하고 본 연구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여 새롭게 구성하였다. 조사한 자료 분석을 실시할 때 사례에 대해서 면 대 면 만남을 통해 합의 과정을 거치고, 이후의 사례들에 대해서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추가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필요 시 추가로 면 대 면 만남을 가졌다. 이후 영역 부호화와 요약 반응 구성, 교차분석의 자료 분석 전 과정에서 면 대 면 만남을 우선으로 하고 온라인으로 의견 교환을 보충하였다. 또한 분석이 완료된

<표 1> 역할 모델에 대한 질문지

주제	질문목록
경력선택과정	① 그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② 그 일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계기와 이유는? ③ 그 일을 하게 된 아이디어는 어떻게 얻었나? ④ 그 일을 하기 전에 경험했던 일에 대한 평가는?
경력선택과정에서 우연적 요인	⑤ 어릴 적 겪을 일 중 지금 경력에 영향을 끼친 것은? ⑥ 경력선택 과정에서 우연한 일들은 어떤 것들인가? ⑦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⑧ 경력경로에서 가장 영향을 받은 인물이나 관계는?
경력선택과정에서 우연의 영향	⑨ 우연한 경험들은 어떻게 영향을 끼쳤나? ⑩ 그 과정에서 계획되지 않은 경력전환 결심 이유는? ⑪ 이 일과 연관되어 도움이 된 중요 경험은 무엇인가? ⑫ 경력전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일들은 무엇인가?
경력역량	⑬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지속적인 동기부여는 어떻게 하나? ⑭ 위기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으며 이때 필요역량은? ⑮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필요한 역량은? ⑯ 개인적 슬럼프가 왔거나 힘든 일이 계속될 때 극복방법은? ⑰ 목표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성공전략은?

후 반드시 감수자들의 검토 과정을 거쳤으며 감수자들의 논평을 반영하여 분석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분석 내용을 확정하였다.

## 2. 연구대상과 인터뷰 프로토콜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대학생들과 함께 기업영역(스타트업, 사회적 기업)에서 활동하는 10인을 선정하였다. 질적 연구에서는 해당연구의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심층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연구대상을 의도적으로 선정한다(Glesne, 1999). 기업영역(스타트업, 사회적 기업)에서 활동하는 역할 모델을 연구하기로 판단한 이유는 대학생들이 최근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면서도 구체적인 활동 내용이 확보되지 않아 시도되었다. 청년 기업가라는 대상 선정은 대학생들과 가장 근접한 연령대라야 경험과 고민의 유사성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청년이라는 연령적 개념에서 40대 미만까지를 포함한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한국 사회의 초고령화 상황과 사업의 성공과 경력의 이행과정에 나름의 독특한 경험을 가질 시간이 필요 했기에 적절히 포함하였다. 실제 미국의 Forbes나 Fortune 등의 경제지는 40대 미만의 젊은 기업인을 매년 소개하고 있기도 하다. 10인의 역할 모델에 대한 인터뷰는 10인의 대학생들이 연구자와 함께 구성된 반 구조 질문지를 통해 2 : 1로 진행하였고 총 2회씩 FGI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 선정과 질문지 작성, 인터뷰 실시까지 2015년 7월-2016년 2월까지 진행되었다.

인터뷰 실시에 앞서 전문가 2인에게 질문의 적절성을 검토하도록 의뢰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동의서를 받은 이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하여 과거를 반추하는 과정으로 질문이 진행되었다. 면접은 연구 참여자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맞추어 실시하였으며 1-2시간 내외로 이루어졌다. 면접 후 면접내용을 녹취하여 축어록을 작성하고 각 사례에 사례 번호를 부여하였다. 연구사례 축어록을 가지고 연구자는 축어록과 사례조사지를 비교하며 반복적으로 읽은 후, 모든 사례의 의미 있는 문장에 밑줄로 표시하였다. 그 후 감수자들을 통해 내용의 일치와 불일치를 확인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여 의미 있는 문장을 합의하였다.

감수자들과 연구자는 연구를 위해 참고한 질적연구의 영역 코딩, 중심개념 코딩, 교차분석 결과를 개별적으로 평정한 후 수차례에 걸쳐 피드백을 주었다. 코딩 과정에 불필요하게 끼칠 수 있는 영향과 연구자 및 감수자들의 편견을 배제하기 위해 원자료 읽기와 상호 적극적 논의를 수차례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그 내용을 토대로 결과를 수정 보완하였다. 범주 코딩은 모든 사례에 대한 의미 있는 문장 추출을 통해 유사한 문장을 묶어 분류하였다. 모든 사례를 범주와 하위 범주로 구성한 후 감수를 받았다. 감수자들은 연구자에게 범주와 하위범주가 원자료에 근거하여 도출된 것인지를 검토하였고, 감수자들의 피드백에 의해 다시 수정 보완하였다. 각 사례를 범주와 하위범주로 구성한 후 사례들 사이에 유사성이 있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하였다.

<표 2> 역할 모델 인터뷰 대상자

사례	업종	연령대	성별	학력	경력기간
1	유통업	40대	남	대학원	6년
2	사회적 기업	30대	남	대졸	6년
3	애플리케이션	40대	남	대졸	3년
4	인터넷 서점	30대	남	대졸	7년
5	사회적 기업	30대	남	대졸	4년
6	플랫폼	30대	남	대학원	3년
7	요식업	30대	남	고졸	4년
8	교육	30대	남	대졸	5년
9	사회적 기업	30대	남	대졸	4년
10	식품가공	20대	남	대재	5년

본 연구에서는 Hill 등(2005)의 제안에 따라 모든 사례 (9~10개)에서 나타난 범주는 일반적(General)으로, 50% 이상(5~8개)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것은 전형적(Typical)으로, 50% 미만(2~4개)에서 나타나는 것은 변동적(Variant)으로 명명하였고 1개 사례에만 나타나는 경우는 기타 사례로 보고 제외하였다. 교차분석 후 감수자들은 각 영역의 범주가 적절한지, 범주명이 중심개념의 본질을 포괄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피드백을 제공하였으며, 연구자는 피드백에 대한 합의를 거쳐 분석결과를 수정 보완하였다.

## 결 과

CQR을 적용한 자료 분석 결과 인터뷰 질문지 구성과 동일하게 총 4개의 범주와 18개의 하위범주들이 나타났다. 4개의 범주별로 빈도를 표로 제시한 후 대표적인 사례의 원 자료의 번호 순으로 내용을 추출하여 함축된 의미를 분석하여 인용 제시하였다. 합의된 범주 4가지는 첫째, 경력 선택에 영향을 끼친 우연적 요소로 하위범주에서 일반적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업의 아이디어 획득부터 자신의 개인적 동기까지 5개의 하위 범주를 도출해내었다. 둘째, 경력 이행과정에서 우연을 기회로 만든 개인역량은 실제 동일한 현실 상황에서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데 그 주요 변동원인을 개인으로 보고 분석한 결과이다. 하위범주는 호기심, 낙관성, 위험감수, 인내심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경력 이행과정에서 위기와 극복인데 이 범주에서는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전 과정에서 대처해야 할 위기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왔는지를 탐색해 본 것이다. 하위범주는 5가지로 나뉘어 개인의 노력과 함께 위기를 극복한 협력자까지 포괄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경력 성공 이후 성찰인데 성공이후 어떻게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지를 총 4가지 하

위범주로 나누어 우연을 기회로 만든 요소라는 관점 하에 분석해 보았다.

<표 3> 계획된 우연과 기회전략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범주	하위범주	빈도
1. 경력선택에 영향을 끼친 우연적 요소	우연한 아이디어의 획득	일반적(9/10)
	영향을 끼친 사람	전형적(7/10)
	경력전환에 영향을 준 우연적 상황	일반적(9/10)
	직전 경력을 통해 얻은 경험	전형적(6/10)
	우연히 확인한 내적 동기	전형적(6/10)
2. 경력이행과정에서 우연을 기회로 만든 개인 역량	호기심	전형적(6/10)
	낙관성	변동적(2/10)
	위험감수	일반적(9/10)
	인내심	전형적(7/10)
3. 경력이행과정에서 위기와 극복	개인적 슬럼프 상황에서 노력	전형적(6/10)
	실패를 극복한 경험	일반적(9/10)
	사회적 편견과 극복	변동적(4/10)
	위기상황에서의 문제해결	전형적(7/10)
	함께 극복한 사람들에 대한 태도	변동적(4/10)
4. 경력 성공 이후 성찰	경력 성공 결과에 대한 평가	변동적(4/10)
	우연 기회에 대한 성찰	변동적(4/10)
	새로운 경력전환에 대한 태도	전형적(5/10)
	우연을 기회로 만드는 전략 제시	전형적(7/10)

### 1. 경력선택에 영향을 끼친 우연적 요소

이 범주의 하위 범주는 5가지로 분류되어 도출되었다. 사례자인 역할 모델들의 내용 중 일반적 빈도로 도출된 것은 두 가지였는데 ‘우연한 아이디어의 획득’과 ‘경력 전환에 영향을 준 우연한 상황’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다음은 전형적 빈도였는데 ‘영향을 끼친 사람’, ‘직전 경력을 통해 얻은 경험’, ‘우연히 확인한 내적 동기’로 확인되었다.

#### 가. 우연한 아이디어의 획득

‘우연한 아이디어의 획득’은 일반적 범주로서 대학생들이 역할모델들에게 가장 궁금해 한 질

대학생의 진로선택을 위한 역할 모델의 우연 경험 연구: 청년 기업가의 경력 성공과정을 중심으로

문이었다. 실제 현재의 사업이 존재할 수 있게 만든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차별화된 아이디어의 확보이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역할 모델들의 답변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그들은 일상생활이나 취미활동을 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아이디어가 우연히 나타났거나, 미디어에 나온 이슈나 영상을 보면서 갑자기 떠오르기도 했고, 쉬고 있는 상태이거나 잠자는 무의식 영역에서조차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경험을 서술하고 있다. 서술 자체만을 보면 아이디어를 우연히 접하게 된 것처럼 해석되지만 사실 아이디어를 찾기 위한 이들의 숨은 노력과 몰입의 과정이 전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의식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원래 평소 길거리를 다니면서 간판이나 다른 것들을 유심히 보는 편이에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꽤 재밌어요.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사례 1)

“창업한 회사를 매각한 뒤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기획 할 때... 사무실에 대학생 인턴 몇 명 있었어요. 요즘 무슨 고민하며 사느냐고 물었더니 이구동성으로 월세 부담을 말하더라고요... 충분히 건드릴만한 주제란 생각이 들었고..”(사례 2)

“영화 보는 걸 엄청 좋아하는데요 \*\*\*\* 라는 영화를 보다가 그 영화 포스터에 나오는 이미지로 사업을 하고 공간을 꾸미고 싶었어요”(사례 7)

“영화를 보고 나니 문득 제가 부끄러워졌어요. 마크 주커버그는 저와 동갑인데 자기실현을 하고 왜 저는 그러지 못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를 세 번 보고 바로 그 다음날부터 사업을 구상하기 시작했어요”(사례 8)

“군대 시절 우연히 원산지를 속여 판 사람들이 경찰에 적발됐다는 뉴스를 접했어요. 그때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제품을 팔아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제대할 때까지 1년 동안 시간 날 때마다 공부하고 조사했어요”(사례 10)

#### 나. 경력전환에 영향을 준 우연적 상황

‘경력전환에 영향을 준 우연적 상황’은 일반적 범주로서 역할 모델들에게 다양하게 확인되었다. 이들은 아이디어의 우연한 획득 과정처럼 자신의 인생에서 경력 전환에 대한 내외부적 열망과 우연한 상황이 만나 새로운 모색을 하게 된다. 기존에 하고 있던 일에서 만족하지 못하거나, 하고 있는 일 외에 다른 일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인생을 찾기 위한 여행길에서, 어렸을 적 겪었던 큰 사건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저는 돈 버는 데 꽤 재능이 있었어요. 카페도 열고 술집도 열고 통장에 잔고가 쌓이고 당시 저는 고졸...근데 사업도 단순히 돈을 버는 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대학에 가서 친구만나고 가슴이 불타오르는 일을 만났어요”(사례 2)

“여행을 하면서 온전히 내 판단으로 선택하고 그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했습니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행을 다니며 자기 스스로 무언가 이루면서 보내는 시간은 인생을 알게 하더군요”(사례 5)

“한 번도 창업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필요를 느끼는 서비스를 만들기로 했는데 혼자 할 수는 없고 같이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함께 작업하는 개발자와 디자이너들이 저처럼 직장을 다니면서 이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회사가 필요하겠다고 느꼈죠.”(사례 8)

“직장 생활에 염증을 느꼈어요. 광고회사 였는데 정말 진이 빠졌어요. 그러다가 사회적 기업 강연을 듣게 되었어요. 어.. 이런 일도 있구나. 싶었죠.”(사례 9)

“어렸을 때 집에 불이 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구호물품도 받고 도움도 많이 받았죠. 그러고선 저 역시도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사례 10)

#### 다. 영향을 끼친 사람

역할 모델들이 자신의 경력성취 과정에서 ‘영향을 끼친 사람’ 으로 언급한 이들은 심리적 지지 집단이거나 사업과 연관된 영향을 준 인물들이 대부분이었다. 동년배와 사업을 시작했 다하더라도 경험이 많은 시니어들의 중요성을 자각했고 사업이 안정화 되지 않았던 시기에 큰 재정적 지원을 해준 조력자 등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많았다. 심리적 지지 집단으로는 부모와 친구, 배우자에 대한 언급이 존재했다.

“동년배 몇 명이 모여 창업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업을 키워가려면 경험이란 게 중요하니까. 이걸 당장 쌓을 수 없어요. 누군가에게 배워야죠. 시니어급 선배의 경험과 지혜, 시행착오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사례 2)

“엔젤 투자자분이 아이디어도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저 하나만을 보고 선택 투자를 해주셨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랐죠. 그 당시에 정말 막막했었는데.. 사실 그 도움이 아니면 지금의 저는 없을 겁니다.”(사례 3)

“주위에서 반대가 엄청 심했죠. 유학도 포기하고.. 근데 막상 부모님이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 대신 다시 학교로 돌아갈 생각은 말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맘을 굳게 먹게 됐죠.”(사례 6)

#### 라. 직전 경력을 통해 얻은 경험

‘직전 경력을 통해 얻은 경험’은 전형적 빈도였는데 역할 모델들이 지금의 사업을 시작하기

대학생의 진로선택을 위한 역할 모델의 우연 경험 연구: 청년 기업가의 경력 성공과정을 중심으로

전 경험했던 다양한 직장경력과 직무에 관한 서술이다. 이 경험을 통해 역할 모델들은 지금의 사업에 유형·무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에게 직전 회사의 경험으로 얻게 된 역량들이 많았는데 특히 다양하고 새로운 기술력과 실무능력, 글로벌 경험이 준 트렌드 분석력, 여러 분야의 창업 경험이 준 자신감 등이 추출되었다.

“\*\*전자회사에서 하드웨어 엔지니어로 일했어요. 몇 년 있다 마케팅 회사로 옮겨 새로운 분야를 배우고 그걸 바탕으로 창업을 했어요. 창업하고 정말 힘들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닌 것 같았죠.”(사례 3)

“\*\*전자 벤처 투자팀에서 일했는데 미국 출장을 많이 다녀왔습니다. 실리콘밸리도 자주 갔어요. 제가 유달리 축이 좋다가 보다 거기에 1주일 이상 있으면 다음 판이 보이는 거죠.”(사례 4)

“미국에 들어 같이 살던 자취방엔 쥐와 바퀴가 들끓었죠. 술 마시며 앞집에 수영장 달린 집을 보며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늘 꿈꿨죠. 그러다 군대 가고 제대하고 스타트업 시작했어요. 그때 경험 해 본 건 20대가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였죠. 정말 자산이죠.”(사례 6)

#### 마. 우연히 확인한 내적 동기

‘우연히 확인한 내적 동기’ 요소도 전형적 빈도로 분류되었다. 역할 모델들은 진로 선택이나 직전 경력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깊은 갈등요소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욕구의 증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열망,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하고 싶은 동기, 타인이 알려준 자신의 선호도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금의 일을 하게 된 동기를 갖게 되었다고 서술하였다.

“\*\*전자의 틀 안에서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왔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큰 그림을 그리고 싶은 욕구에 시달렸죠. 대기업에 근무하는 뿌듯함도 있었지만 나만의 것을 만들고 싶다는 욕구가 있었고요. 고심 끝에 사표를 썼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 그러다 2년 전 가을에 크라우드 소싱 \*\*에 대해 알게 됐고 이 컨셉을 듣자마자 느낌이 왔어요.”(사례 3)

“저희 들은 이 회사 만들기 전부터 이쪽 업계에선 꽤 유명했어요. 여러 스타트업에 참여했고 결국 ‘남의 것 말고 우리만의 일을 만들어 보자’ 뭐 이렇게 욕구가 막 생기더라구요.”(사례 6)

“그 동네 살 때 주변 누나들이랑 형들 그리고 친구들이 굉장해요. 시골에서 막 올라와서 아무 것도 모르던 제게 ‘취향’ 이라는 걸 알려줬어요. 정말 아무 것도 몰랐는데 저를 키워준 거죠.”(사례 7)

## 2. 우연을 기회로 만든 개인역량

Mitchell 등(1999)과 Krumboltz(2009)는 계획된 우연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와 기회를 인식하고 활용하며 적응하는 능력으로 '우연준비 지수'(luck readiness index)를 제시하였다. 이 지수는 유연성, 낙관성, 위험감수, 호기심, 인내심 등의 5가지 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술은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동원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직업선택 과정이나 생애진로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안윤정, 오현주, 2012). 그러나 역할 모델들의 서술을 통해 분석해 본 요소들 중 '유연성'은 1명만 언급하여 기타 요소로 분류되어 포함되지 못했다.

### 가. 위험감수

위험감수는 일반적 빈도인데 이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불안을 극복하고 적극 실행 하는 것이다. 역할 모델들의 개인역량 요소에서 가장 빈도 높게 나타난 것이 '위험감수'이다. 이들이 위험감수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직전 경력에서 비주류였기 때문에 겪었던 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거나, 아직 너무 젊기 때문에 얼마든지 새로운 시도가 가능하다는 자신감, 미래를 위해 다소 무모하더라도 도전하는 것이 더 큰 이익을 가져 오기 때문에, 정말 재미있기 때문에, 큰 열매는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므로 감내할 수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다.

*“이전 회사에서도 SKY 졸업생 사이에 학연이나 파벌에서 소외되어서 회사 다니는 내내 그냥 '나는 비주류'구나 생각했죠 근데 오히려 그래서 주류도 아닌데 과감히 창업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사례 1)*

*“그냥 정말 아직은 제가 젊으니까 지금은 실패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도전했어요”(사례 2)*

*“작은 것과 큰 것 중에 큰 것을, 안전한 것과 무모한 것 중에는 무모한 것을 선택했어요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선택한 셈이죠”(사례 5)*

*“안정된 직장을 버리겠다는 결정에 대해 주변에서는 의아해했고 집안의 반대도 심했죠 근데 두 가지 일을 같이 할 수가 없었어요 직장 생활을 하며 이걸 운영하면 죄 짓는 일 같았어요 직장생활이 소홀해 질 수 밖에 없었어요 결국 하나를 선택해야 했죠 거긴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많지만 이 건 제가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사례 8)*

*“요즘 취업하는 친구들을 보면 너무 자신을 규격화하는 것 같아요 이러다간 그 누구도 위험을 무릅쓰려하지 않겠죠 자신만의 이야기도 사라질 거구요 큰 열매 맺으려면 많은 위험을 무릅쓰는 게 중요해요 저도 그때 저지르지 않았으면 두려움 때문에 지금도 아무 일 못할 걸요”(사례 10)*



## 나. 인내심

‘인내심’은 전형적 빈도인데 좌절에도 노력을 지속하는 것을 말한다. 호기심을 보완하는 기능을 하기도 하며 주어진 과제나 문제 상황을 포기하지 않고 해내는 요소이다. 역할 모델들은 지금의 성공이 결코 순식간에 얻게 된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치열한 시장경쟁과 사회적 인식 부족 등으로 절박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여건이 정비되지 않아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을 경험해 왔다. 언급된 내용을 보면 ‘꾸준히 매달리고, 반복해서 될 때까지 시도하고, 죽는다는 각오로, 잠자는 시간 없이, 프로는 정말 오랫동안 고생한 사람들’ 등으로 서술하고 있다.

“사람들은 하루 만에 뭐가 툭 떠오르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몇 백일 매달려서 꾸준히 그것만 생각해서 반복하다가 만들어요”(사례 1)

“하루에 잠자는 시간을 빼고는 일만 했어요 하루에 열 두 번씩 회의하고 포기할 수가 없었죠 같이 고민하던 사람들이 이탈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해보리라 결심했거든요”(사례 2)

“투자자에게 바로 달려갔습니다. 머릿속에 성공 아니면 죽는다는 각오였죠. 2시간 동안 설득했고 생각하지도 못한 투자금을 받게 됐어요 실리콘밸리에나 있을 영화 같은 장면이었죠”(사례 3)

“요즘 그 분야 인기니까 갑자기 그거 한번 해볼까?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안돼요 그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은 정말 오랫동안 고생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아야 해요”(사례 7)

## 다. 호기심

‘호기심’도 전형적 빈도이다. 새로운 학습기회나 진로를 탐색하고 우연적 사건으로 생겨난 선택 사항을 추구하는데 사용하는 기회 전략이다. 역할 모델들은 호기심을 자신의 창의성과 연관시키기도 했고, 세상의 변화에 대한 탐색과 민감성 등을 언급하고 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새롭고 의미 있는 일들을 탐색하는 것 자체를 즐기고 이를 유형의 사업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의욕을 지속적으로 표출한다는 점에서 ‘창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가진 크리에이티브한 성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계속 다니는 것 같아요. 직장생활도 그래서 그만 둘 수 있었어요”(사례1)

“어쨌든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아직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빨리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거기에 모두 다 같이 집중하는 것, 그래서 빨리 새로운 생태계가 구축되어 꽃을 피우는 겁니다.”(사례 4)

“여기 오신 분들이 어떤 취향을 가졌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렇다고 아무 하고나 소통하는 건 아니구요 그냥 매력적인 사람에게 호기심이 생기고 뭐든 같이 일하면 즐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사례 7)

## 라. 낙관성

‘낙관성’은 새로운 기회가 올 때나 개인이 뜻하지 않은 일을 겪을 때 그것을 기회로 받아들이고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는 긍정적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기회요소이다. 역할 모델들의 언급을 보면 어려운 상황이나 급격한 전환을 긍정적이고 행운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발견되고 있다.

“대부분 2~3년 다니다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회사를 옮기는 게 제게는 큰 일이 아니에요. 어차피 겪을 거 즐기자는 생각도 있구요”(사례 1)

“저는 정말 운이 좋았어요. 당시 정부와 공공기관이 우리 같은 소셜 벤처를 키우기 위한 흐름이 조성된 시기라서 올라 탄 거죠”(사례 2)

## 3. 경력이행과정에서의 위기와 극복

비즈니스 영역에서의 활동은 매우 힘든 과정이자 선택이다. 역할 모델들에게 경력 이행과정에서 경험했던 위기가 무엇이었으며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대부분의 역할 모델들이 실패를 경험했고 이후 지금의 사업 성취가 있기까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이 과정에서 스스로 겪었던 슬럼프의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는지, 그들이 겪은 사회적 편견은 무엇인지, 이 모든 상황을 겪는 과정에서 자신을 도왔던 이들은 누구였는지를 서술해 주었다.

### 가. 실패를 극복한 경험

‘실패를 극복한 경험’은 일반적 빈도로 역할 모델들이 가장 많이 강조한 서술 중 하나이다. 현재의 사업 성공을 위해 겪었던 실패는 그들에게 다양한 의미로 규정되었다. 공통점은 실패 전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연구에 몰두하거나, 실패 자체를 값진 경험으로 받아들이거나, 실패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즉각적 실행을 독려하는 등의 서술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점은 이들이 타인에 비해 회복 탄력성이 좀 더 높을 수 있다는 판단이 들게 한다.

“대학교 3학년 때 처음 창업에 도전했다가 6개월 만에 실패했어요. 첫 경험에서 실패하고 나서 친구들과하고 사회적 기업을 연구하는 모임을 만들었어요”(사례 2)

“주변에서 저를 무시할 때 끊임없이 넘어졌어요.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죠. 중학교때 퇴학 당하고 그 뒤로 쭉 실패 연속이었죠. 하지만 주저하지 않고 새로운 다른 일을 바로 시작했어요. 해보고 싶다면 망설이지 않고 그냥해요. 그게 더 좋은 거 같아요. 결과가 나빠도 경험은 남으니까요”(사례 7)

“실패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요. 지금 당장 해봤으면 좋겠어요. 블로그라도 만들어서 부딪혀

대학생의 진로선택을 위한 역할 모델의 우연 경험 연구: 청년 기업가의 경력 성공과정을 중심으로

보면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걸 알게 되니까. 큰 돈 들이지 말고 작은 돈으로도 얼마든지 멋진 사업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사례 9)

#### 나. 위기상황에서의 문제해결

‘위기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관한 서술은 전형적 빈도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답변 사례를 보여준다. 위기상황이란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상처럼 다가오는 것이지만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개인과 조직의 역량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역할 모델들은 위기상황을 맞으면 자신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영역을 따지지 않는 왕성한 독서를 통해 지혜를 얻는 방법, 합리적 문제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집중하는 방법, 극한의 인내를 가지고 버텨내는 방법 등으로 나름의 상황 타개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보였다.

“저는 일단 책을 다치는 대로 읽어요 인문학부터 철학, 디자인, 경영...안 가려요 뭔가 인생에 방향이나 영감을 얻기 위해서죠 어느 순간 머릿속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생각이 떠올라서 그걸 바로 적용해 봐야해요.”(사례 1)

“얼토당토 않은 이유를 들어 고소를 당하기도 했고 근거없는 루머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모두 겪는 것들이라 생각합니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어떻게 최소화할지에 주안점을 두고 이겨내고자 노력하는 편이기도 하구요.”(사례 2)

“컨설팅부터 디자인까지 돈 되는 건 다했던 시절이었어요 어느 순간 회사가 창의적인 생각이 없다고 느꼈죠. 클라이언트 입맛만 맞추는데 급급했었으니까요. 이후 회사 재정 넘어가고 직원들 다 나가고 사무실도 없고... 근데 이 일을 접으면 저도 죽을 것 같아서 버텼죠”(사례 6)

#### 다. 개인적 슬럼프 상황에서 노력

‘개인적 슬럼프 상황에서의 노력’은 전형적 빈도로 나타났다. 이는 위에서 살펴본 사업전체가 겪는 위기상황과는 달리 개인이 겪는 심리적 위축과 지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 사례들이다. 역할 모델들 대부분이 개인적인 방황과 곤경을 극복한 경험들이 존재했다. 이들은 새로운 교육의 기회를 왕성하게 활용하거나, 대인관계를 확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경청할 기회를 만들거나, 통찰력을 기를 수 있는 독서나 미디어 조사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획득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해외에 나가는 기회를 적극 활용해서 교육을 확장하거나 정보를 새롭게 수집하면서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은 단순히 개인적 위기를 극복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들의 사업과 연관된 전략적 행동이라고 판단된다.

“갑자기 심각한 슬럼프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후배들이 일을 훨씬 잘하는 것 같고...스스로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대학원에 갔어요”(사례 1)

“관찰하고 장단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따지려는 습관이 있고 사람을 많이 만나고 경청하려는 편이죠. 경제신문 보는 게 굉장히 재밌네요.”(사례 2)

“어릴 때부터 독서량이 아주 많았어요. 수많은 소설과 영화를 보면서 문학적 통찰을 쌓았죠. 그 힘 때문에 제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사례 7)

## 라. 사회적 편견과 극복

역할 모델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사회적 편견이 주는 벽’이었다. 빈도는 변동적으로 집계되었으나 경험 내용은 만만치 않았다. 이들이 겪었던 사회적 편견들은 학벌, 나의 길을 개척하는 사람들에 대한 질시의 시선, 인맥이 없는 이들이 겪어야하는 선입견, 근거 없는 타인의 비난에 대처하는 일 등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경험들은 새로운 사업을 실행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위기로 판단된다. 기존의 시장에 자신들의 사업을 알리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던 잠재적 고객들에게 꾸준한 설명과 설득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필연적 과정은 인력과 재원이 부족한 이들에게 큰 도전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저는 가방끈보다는 사회에서 정해진 길 보다 항상 내가 하고 싶은 것 잘할 수 있는 것을 생각했어요.”(사례 1)

“관련업체를 방문하면 거간꾼으로 오해받기도 했습니다. 뭐, 한국 사람들은 일단 익숙하지 않으면 거부감을 보이잖아요? 처음 접하는 일에 대해선 마음을 잘 열지 않죠. 인맥도 없고 참 힘들긴 했어요.”(사례 4)

“사람들이 욕하는 거요. 나름 정직하고 착하게 살고 있는데 왜 욕을 들어야 하는지 늘 억울했어요 ..... 이제는 그 욕하던 사람들이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욕해도 안 무너지니까 무서운건지 그만두던데요.”(사례 7)

## 마. 함께 극복한 사람들에 대한 태도

역할 모델들은 기본적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맺고 확장하는 것에 대해 개방적이며 적극적인 편이었다. 이들은 위기 상황에서도 ‘자신을 믿어 주는 지지 집단’의 존재를 중시했고 이들의 조언을 통해 적극적으로 실천한 것으로 보인다. 부모, 배우자, 자녀 등 친밀한 주변인의 지지를 얻은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심리적 부담과 실패에 대한 불안을 덜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직원들의 역할에 대한 의견제시가 많았는데 직원들을 통해 자신이 성장한다는 것, 직원들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고 그들을 인재로 키워주는 역할의 중요성 등을 언급하였다.

“저를 도와주는 부모님과 많이 믿어주는 마누라. 스타트업을 하겠다는 건 저도 좀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마누라가 하면서 배워보라는 거예요.”(사례 1)

대학생의 진로선택을 위한 역할 모델의 우연 경험 연구: 청년 기업가의 경력 성공과정을 중심으로

“한 집단의 수장이 되고 보니 그 수장을 발전시키는 건 결국 뜻대로 안되는 직원뿐 이더라구요. 모두가 잘하면 리더는 바보가 되죠. 사람이 맘대로 안되니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장하는 거죠.”(사례 7)

“사업할 때 가장 힘들게 했던 것도 사람이지만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했고 또 웃을 수 있었습니다.”(사례 10)

#### 4. 경력성공 이후 성찰

역할 모델들의 어려움 속에서 성공을 이룬 경험에 대한 성찰에서 4가지의 하위 범주가 도출되었다. 가장 높은 빈도의 항목은 ‘우연을 기회로 만드는 전략 제시’(전형적, 7사례)였고 순차적으로 보면 ‘새로운 경력전환에 대한 태도’(전형적, 5사례), ‘우연 기회에 대한 성찰’(변동적, 4사례)과 ‘경력 성공 결과에 대한 평가’(변동적, 4사례)는 같은 횟수로 파악되었다. 이들의 성찰을 살펴보면 지금의 경력 성공은 다양한 우연과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 것은 맞지만 치밀한 계획과 준비, 남다른 전략, 뚜렷한 자기관점, 즐겁고 재미있는 일의 추구 등이 없었다면 성공할 수 없었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 가. 우연을 기회로 만드는 전략제시

‘우연을 기회로 만드는 전략’은 역할 모델들이 자신의 사업적 성공을 반추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전략요소들을 정리해 본 것이다. 이들이 주요하게 꼽고 있는 전략은 다양한 경험, 타인과 다른 독특성,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는 일 처리 능력, 성실성,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일과 휴식의 철저한 병행, 탁상공론이 아닌 실행력 중시, 비즈니스 마인드의 구축, 지속적인 학습, 현장 중심의 트렌드 읽기, 즐거움의 추구 등이었다. 위에서 언급한 우연 준비지수가 개인역량이라면 성찰에서 드러난 전략들은 우연을 실질적인 기회로 만드는 비즈니스 마인드와 실행역량으로 볼 수 있겠다.

“저는 뭐 몇 시까지 일한다는 개념이 없어요 아주 빠르게 일하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하는 사람들과 좋은 생각이 나면 새벽에라도 연락하고 회의해요. 그러나 주말엔 완전히 애들하고만 집에서 지내요.”(사례 1)

“사람들은 경험하지 않고 말로만 하더라구요 또 비즈니스 마인드가 확실해야만 해요 요즘 인문학 중시하던데 비즈니스가 먼저예요.”(사례 7)

“저는 하나에 집중하면 정말 빨리 습득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창업을 하면서 정말 알아야 할 게 많았어요 특히 경영쪽으로 그래서 무조건 시간 날 때 마다 계획대로 공부했죠.”(사례 8)

“물가 동향을 파악하려고 새벽시장을 매일 나갔어요. 그런데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행복해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강남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인상이 없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일하는 사람, 즐겁게 일하자”(사례 10)

#### 나. 새로운 경력 전환에 대한 태도

역할 모델들은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아 '새로운 진로를 선택하고 경력을 전환'하는 것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경력 전환 과정에서 이들은 타인이나 사회적 시선보다는 자신의 가치관을 중시하였으며 단순히 돈을 좇는 삶이나 해외에서 도입되는 것만을 높이 평가하는 관점을 경계했다. 또한 아무런 준비 없이 무모한 실행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철저한 사전 계획과 열정, 경계를 넘고자 하는 도전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의 대학생들이 다른 세상을 경험해 보지 못하는 협소함이 있고 사회적 시선에 과도하게 예민한 것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공통점이 확인되었다.

“젊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당장 돈 버는 거 보다 세상에 대해 스스로 정의내리는 힘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거 같아요. 흔들리지 않게 자기 가치관을 만들면 세상은 내편으로 만들고 아니면 타인의 범칙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사례 1)

“나도 처음에 그랬지만, 무모하게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철저한 계획이나 열정 없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거의 다 실패합니다. 자생력도 길러야 하구요. 해외에서 가져오는 것만 좋아하거나, 돈만 좇는 형태는 위험해요.”(사례 3)

“한국 학생들은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회에서 말하는 기준에 맞춰 살려고 하고 이상과 다른 현실에 좌절하죠. 자신에게 못난 점이 있으면 솔직히 인정하면 됩니다. 스스로를 똑바로 보고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말고 하고 싶은 것 표현하고 하세요.”(사례 5)

#### 다. 경력 성공 결과에 대한 평가

역할 모델들은 '경력 성공 결과'에 대해 뚜렷하게 확인되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성공을 '즐거움' 그 자체로 평가했고 타인이 좋다고 하는 안정적인 일보다 스스로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재미있게 하게 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다. 또한 국가나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기초부터 성공까지 이루게 된 것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게 나타났다.

“즐거움 경험이었어요. 인생을 설계하고 비즈니스를 하니깐 즐거워요”(사례 2)

“일단 자기가 좋아할 수 있는 게 뭔지 찾는 게 제일 먼저인 거 같아요. 여러 가지 경험 해보고 거기서 '내가 나중에 정말 좋아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죠. 보통 남들이 좋다고 하는 일은

대학생의 진로선택을 위한 역할 모델의 우연 경험 연구: 청년 기업가의 경력 성공과정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거잖아요. 그런 일은 좀 재미없을 확률이 확실히 높아요. 근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은 재밌어요. 즐겁고.그걸 찾는 게 먼저죠.”(사례 8)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국가 지원 자금을 못 받은 게 성장 기반이 됐어요. 밑바닥부터 죽기 살기로 치열하게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일군 거라서 너무 뿌듯하죠. 스스로가 대견하기도 하고요.”(사례 10)

#### 라. 우연 기회에 대한 성찰

역할 모델들은 ‘우연한 기회’가 뜬금없이 생겨나는 허황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성공 경험과 미래에 대한 적극적 준비를 통해 얻게 된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새로운 경력 전환도 적극 모색해야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들은 미래를 상상하고 이것을 현실화시키는 노력이 병행 될 때 우연히 주어지는 기회는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 준다고 분석했다.

“저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 이루고 싶은 것들, 미래에 대한 상상도 많이 하고 시뮬레이션도 마구 마구 해보는 것을 즐깁니다. 상상하면 현실이 된다는 것은 광고에나 나오는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미래를 상상하지 않으면 절대 현실화 될 수 없어요.”(사례 2)

“솔직히 말해서 운도 따라줘야 합니다. 그렇지만요. 누구에게나 운이 결과를 만들지는 않죠. 그냥 쓰윽 지나가버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좋은 운도 준비된 사람만이 잡을 수 있는 거예요.”(사례 4)

### 논 의

본 연구에서 만난 청년 기업가들은 다양한 과정을 거쳐 지금의 일에 도전하고 성공을 이루었다. 이들이 그 일을 시작하게 된 주요 동기는 우연한 상황과 다양한 개인적 특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이다. 앞서 살펴본 선행 연구들은 진로와 경력 성공이라는 것은 계획된 과정과 절차 뿐 아니라 우연적 상황과 기회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밝혀왔다(Osipow, 1990; Salomone & Slaney, 1981). Krumboltz와 Levin(2004)은 우연적 사건이나 상황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긍정적인 기회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개인적 특성이나 자질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만난 역할 모델들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새로운 경력을 선택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우연적 요인을 기회로 만든 경험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역할 모델들의 경력과정에서 나타난 공통점과 특이점들을 파악하여 대학생들의 진로 모색에 의미 있는 함의를 얻고자 하였다. 합의적 질적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전환적 경력 이행의 경험이 있는 10명의 청년 기업가를 대학생들과 직접 인터뷰하고 이들의 정보를 얻었다. 서술된 자료를

통해 총 4개의 범주와 18개의 하위범주가 세 가지의 빈도로 구분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범주는 ‘경력 선택에서 영향을 끼친 우연적 요소’였고 다섯 가지의 하위 범주로 분류되었다. 우연한 아이디어의 획득과 경력전환에 영향을 준 우연적 상황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경력선택에 영향을 준 사람, 직전 경력의 경험, 우연히 확인한 내적 동기 등의 빈도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언급된 ‘우연한 아이디어의 획득’은 역할 모델들이 현재의 사업을 시작하게 된 차별화된 아이디어의 확보에 관한 서술이다. 사업에 성공한 이들은 대부분 남다른 아이디어를 갖고 이를 현실화 시킨 사람들이다. 이에 대학생들은 역할 모델들이 자기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게 된 과정, 상황 등에 대해 매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역할 모델들의 서술 내용을 보면 이들은 젊은 세대가 가진 새로운 기술과 창조적 콘텐츠에 민감한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 새로운 정보습득과 탐색과정을 거쳐 국내외의 다양한 정보를 우연히 습득하게 되는 상황에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있었다. 이러한 특징은 Florida(2005)가 언급한 ‘창조계급’의 특징인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의 일을 찾고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과 흡사하였다. 또한 신생직업 개척자들의 ‘창조’에 이바지하는 경력으로의 입성(한상근, 장주희, 윤수린, 2013) 과정에서 드러난 것과도 유사했다. 본 연구의 역할 모델들이 청년 기업가들인 만큼 이들은 앞의 연구에서 언급한 창조적 특징과 신생직업 개척자로서의 특징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대부분 스타트업이나 사회적 기업을 하는 상황이므로 창조적 아이디어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직업영역에 종사한다. 실제로 어떤 아이디어인가에 따라 사업의 진퇴가 판단될 수도 있는 비즈니스 영역인 것이다. 아이디어는 이들에게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기에 업무영역에서 끊임 없는 탐색과 몰입의 과정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업무영역에서 전략적이고 계획적으로 아이디어 탐색과정이 진행되었다면 일과 무관한 일상 생활, 문화생활, 취미활동, 학습과정, 타인과의 대화 등에서 우연히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된 경우들이 더 많았다.

‘경력전환에 영향을 준 우연적 상황’ 또한 일반적 범주로서 역할 모델들에게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이들은 과거와 현재의 다양한 상황을 통해 자신의 인생에서 경력 전환에 대한 새로운 모색을 하였다. 예를 들어, 기존에 하고 있던 일에서 만족하지 못하여 새로운 뭔가를 시도하고 싶을 때, 하고 있는 일 외에 다른 일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선택과 집중이 절실히 요구될 때, 쉼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는 과정에서 등의 내용이 언급되었다. 이들이 서술한 우연한 상황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반적인 경험들이다. 이는 이전 연구들(신순옥 외, 2015)과도 일치하는 결과로 연구대상들이 경력전환을 선택했던 상황에서는 다양한 우연적인 요소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일반적 우연 경험, 평범한 상황 속에서 결단하지 않고 안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면 역할 모델들은 그 상황 자체를 기회로 판단하여 적극적인 경력 전환의 주도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역할 모델들은 자신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으로 가족 관계(부모, 배우자) 등과 사업과



연관된 인물의 두 대상으로 나누어 언급하였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한상근 외, 2013; 이상희 외, 2012; 신순옥 외, 2015)에서는 가족관계가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들의 동의로 긍정적 자신감을 얻거나 자신의 경력 전환으로 이들에게 경제적 부담이나 심리적 불안을 줄까봐 우려하는 경향은 본 연구와도 동일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역할 모델들은 가족의 지지보다는 사업과 연관된 투자자나 전문적 사업 경험이 있는 선배 등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경력을 통해 얻은 경험'에서 역할 모델들은 직전 경력에 적용하지 못하고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의 사업을 하고 있다는 부정적 관점보다는 직전 회사의 경험으로 인해 가장 필요한 역량과 관계, 인식의 확장, 자신감 등을 얻게 되었다고 밝히며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연히 확인한 내적 동기'를 발견하게 되었고 적극적인 자기 성찰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탐색하고 숨겨진 열망을 표출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실행이 지금의 사업을 만든 계기라고 평가하였다.

두 번째 범주는 역할 모델들이 현재의 성공이 있게 한 개인 역량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우연을 기회로 만든 개인 역량'은 계획된 우연이론(Mitchell et al., 1999; Krumboltz, 2009)에서 언급된 것처럼 우연을 기회로 만드는 개인적 특성이 있고 이러한 특성을 활용함으로써 진취적인 실행과 목표 달성이 현실화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경력선택을 경험한 사람들은 우연적인 상황이나 사건을 기회로 만드는 내적 역량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이상희 외(2012)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우연 요인을 기회로 만든 개인의 경험에 공통적인 주제와 의미를 발견하였으나 연구 결과에서 5가지 요소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위험감수', '인내', '호기심', '낙관성', '유연성'의 빈도로 개인 역량이 확인되었다. 여기서는 앞서 밝혔듯이 유연성은 1명의 사례에서만 발견되었기에 포함하지 않고 4개의 하위 범주만을 개인역량으로 판단하였다. '위험감수'는 가장 높은 일반적 빈도로 도출되었다. 여기서 언급된 위험감수는 경력을 전환할 경우 고난과 역경이 예상되지만 결국 새로운 일을 결심하는 용기 혹은 열정이라고 볼 수 있다. 역할 모델들은 실제 직전 경력이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전도유망한 직업과 기업에 종사한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지대를 벗어나 불확실한 도전지대로 경력 전환을 결정하는 것은 이들이 남들에 비해 자기 스스로 개척한 일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자기 주도형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정신도 높고 창조적인 일에 대한 흥미와 재미를 즐기는 특징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특성은 창업자들의 역량 요소인 위험감수(Helem & Anderson, 2010; 배귀희, 2011)와 유사성이 매우 높다. 특히 이들은 사회적으로 아웃사이더라는 인식에 익숙해져있거나 스스로를 그와 같은 상황에 놓아두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으며 위험감수를 통해 더 큰 성공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서술하고 있다.

역할 모델들이 다음으로 언급한 개인 역량은 '인내심'이다. 위험감수 역량 다음으로 인내심이 높은 빈도인 것은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역할 모델들은 그들이 이론 현재의

성공이 결코 쉽게 얻은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선택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겪은 불확실함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을 매우 중시하고 있었다. 이들이 언급하는 인내심은 단순한 감내가 아니라 실패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모호함을 견디는 창업가적 사고이자 행동양식(Bygrave, 2004)이라고 판단된다. 역할 모델들의 개인 역량 중 '호기심'은 기업가들에게 필요한 기본적 속성 중의 하나이다. Sennet(2009)은 그의 저서 『장인(The Craftsman)』에서 호기심을 숙성시켜 제대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탁월함을 만든다고 보았다. 이렇듯 호기심은 새로운 발견과 발명을 이끄는 힘이 된다. 역할 모델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트렌드와 시장을 분석하고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며 창조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역량을 요구받는다. 이를 위해서 호기심을 갖고 자발적인 학습 기회를 지속적으로 찾으며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들은 새롭고 의미 있는 일들을 탐색하는 것 자체를 즐기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고히 정립하는 결과를 얻기도 한다. 또한 호기심을 통해 얻게 된 다양한 정보와 인맥을 통해 혁신적 사업 아이디어를 찾게 되는 우연한 성과를 가지기도 하였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개인 역량인 역할 모델들의 '낙관성'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 필수 요건인 비즈니스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들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실패와 문제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의 역할 모델들이 언급하는 낙관성은 단순한 자기계발식의 긍정심념이 아니다. 이들은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이 언급의 배경에는 자신에 대한 강한 자신감과 확신, 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 풍부한 실천 경험 등이 존재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세 번째 범주는 역할 모델들의 '경력 이행과정에서 경험했던 위기와 극복'을 분석해 본 것이다. 본 연구의 역할 모델들은 전환적 경력 이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일을 하게 되는 결정과정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창업이라는 전환적 진로 선택을 결정한 참여자들에게 경제적인 책임감과 조직 대표로서의 지위는 이들의 선택에 커다란 부담감을 주었다. Newman(1995)은 진로 전환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극심한 불안과 실패에 대한 공포감, 새로운 일에 대한 적응 부족으로 인해 부정적 인식이 강화된다고 보았다. 더욱이 새로운 진로로의 변환은 그들에게 미래에 대한 불확실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흥미롭게도 역할 모델들 대부분이 어려운 상황과 실패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경력 성공을 위해 실패를 딛고 즉각적으로 일어서는 강한 회복탄력성의 외적 요인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측면은 선행연구(손은령, 2012)와 다소 차이를 보여주는 부분인데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가족과 사회의 유대관계를 중시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역할 모델들은 강한 긍정심리를 기반으로 자기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실패를 학습 경험으로 삼아 새로운 일을 바로 시작하는 전환적 실행력을 더 우선순위에 놓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경력으로의 전환이 마치 실패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문화나 진로결정에서 변화 가능성을 열어 놓지 않는 것은 매우 편협한 관점일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실패했다는 것은 무언가를 시도했다는 것이며, 시도 자체의 의미를 기반으로 결과의 성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지하고 지원하는 시스템과 문화가 대학생들에게도 필요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개인이 자신에게 맞는 진로선택을 이루기 위해서는 진로를 찾아가는 가정에서 시행착오를 겪고(신순옥 외, 2015), 완전하지 않더라도 스스로를 믿고 지속적으로 실행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기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관한 서술은 기업가들에게는 일상처럼 다가오는 것이지만 역할 모델들이 청년세대인 만큼 더욱 다양한 경험들이 많았다. 이들은 사업을 시작하고 시장을 개척하는 일의 고단함과 다른 업체와의 경쟁, 자본력 부족, 인재 부족, 고객들의 인지도 부재, 공공기관과 관계 설정의 어려움, 법적 무지, 조직 내부 소통 문제, 업무 영역의 경계 불명확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야 했다. 역할 모델들의 공통점은 위기상황을 맞으면 자신만의 방법으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들은 세 가지 측면에서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지식과 정보 습득, 경쟁력 있는 전략 수립, 위기를 헤쳐 나가는 인내 등이 가장 많이 확인되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는 명제가 실제 이들의 문제해결 과정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이들은 위기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다양한 시장을 개척하고 틈새시장을 공략하여 수익 모델을 안정화 시키고, 법적 제도적 보완에도 앞장서며 학습과 기술개발에 매진하였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최신 정보 습득과 인맥 활용, 발 빠른 트렌드 파악, 동종업계 사람들과의 네트워킹 강화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수시로 겪다보면 개인적 위축이 오기 마련이다. 이들도 ‘개인적 슬럼프 상황에서의 노력’이 나타났다. 이는 위에서 살펴본 사업전체가 겪는 위기상황과는 달리 개인이 겪는 심리적 위축과 지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관한 사례들이었다. 역할 모델들 대부분이 개인적인 슬럼프가 존재했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한 극복방안은 위에서 본 조직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과 유사하였다. 즉, 새로운 교육의 기회(학습)를 왕성하게 활용하거나, 대인관계를 확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경청할 기회를 만들거나, 통찰력을 기를 수 있는 독서나 미디어 조사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며, 해외로 나가서 인식을 넓힌다는 등의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해결방법의 유사성은 개인의 삶과 사업이 일체화되어 있는 몰입 관계 때문으로 판단되기도 하며 한국인들 특유의 일과 개인 생활의 경계 모호라는 직장 문화 때문이기도 한 것 같다. 요즘 대학생들은 일과 개인 생활의 구분이 명확하고 휴식을 제대로 취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원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실에서 역할 모델들이 보여주는 현장의 엄혹함과 자기 관리의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이 과정에서 대학생들이 자신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현명할 것인지를 도출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역할 모델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 또 다른 것은 ‘사회적 편견이 주는 벽’이었다. 이들이 겪었

던 사회적 편견들은 한국사회의 편견이 그대로 투영되었다. 대표적으로 대기업 중심의 시장과 신생 기업에 대한 차별, SKY 중심의 학벌주의, 사회적 기대에 반하는 자기 주도적 경력 선택에 대한 불신 등이 존재했다. 이런 편견을 겪는 과정에서도 역할 모델들이 가장 우려했던 것은 사회적 시선과 타인의 평가 때문에 자신의 경력 선택에 위축을 받는 것이었다. 이들은 자신의 선택에 당당했으며 독특한 자기만의 삶을 소신 있게 개척해나가는 주도성을 견지하려고 노력하였다. 확고한 자신만의 가치관이 뚜렷했으며 자신의 일에서 잘못 된 경우는 과감히 바꾸려고 노력하였다. 새로운 길을 개척해 온 만큼 이들은 사회적 시선에 자유롭고, 자신의 선택에 대한 만족감이 높았으며 사업에서 오는 자부심도 컸고 사업의 결실을 사회적 공익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식도 높았다.

그러나 한국의 대학생들은 진로 결정 과정에서 사회적 시선, 부모 및 주변의 기대 때문에 자기 주도적 진로 설계에 한계를 보이는 경우가 많고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이 있더라도 이러한 주변의 기대 때문에 자신의 진로를 포기하거나 숨기는 경우가 많다. 역할 모델들이 여러 차례 강조한 자기 주도적 진로 설계와 실행의 중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성찰 해 볼 필요가 있다. 역할 모델들은 위기상황과 슬럼프를 ‘함께 극복한 사람들’에 대한 인식도 뚜렷이 표현하였다. 앞서 지지 집단보다 사업적 관계를 중시했던 특징처럼 여기서도 가장 많이 언급된 이들은 ‘직원’들이었다. 원래 본 연구의 역할 모델들이 타인과의 관계에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편이었지만 인재를 영입하고 이들이 가진 가치에 공감하고 자신과 오랫동안 함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었다.

네 번째 범주인 ‘경력 성공 이후 성찰’을 살펴보면 위에서 살펴본 우연 기회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서술되어 있다. 역할 모델들은 지금의 경력 성공이 다양한 우연과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 것은 동의했으나 그들 스스로가 우연을 기회로 만든 남다른 준비와 전략이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그 누구보다 주도적으로 일을 추진했으며 이 과정에서 큰 만족감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만족감은 전환적 진로선택에 의해 결정된 현재의 직업이나 진로에 대하여 높은 만족감을 보여준 선행연구들(이상희 외, 2012; 장원섭 외, 2013)과 동일한 결과였다. 이들의 성찰을 정리하여 보면 삶이 개인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두려워서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자신의 가치관대로 철저한 계획을 통해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것이 더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즉, 미래의 가능성을 모두 접고 안전한 길만을 자신의 진로로 계획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그들의 경험은 안전한 진로만을 모색하거나 사회적 시선에 얽매어 자기의 꿈을 찾아보지도 못하거나, 단순히 돈만을 추구하는 대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충고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언급한 모든 우연 기회는 아무런 맥락 없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준비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점 또한 거듭 강조하고 있었다. 이 과정을 통해 예상하지 않았던 새로운 우연을 만나 또 다른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면 경력 전환은 두려운 일이 아니라 즐겁고 재미있는 것임을 확신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역할 모델들은 지금의 일에도 만족하고 있었으나 경력 전환이 필요하고 이것이 자신과 현재의 조직을 발전시키는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도 언제든지 새로운 변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들은 대학생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경험이든 다양하게 체험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실행 과정이 없다면 우연한 기회는 접할 수 없기 때문에 망설이지 말고 자신의 의미를 찾아 떠날 것을 독려하고 있다. 이러한 제안들은 앞으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지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급속한 변화가 일상이자 트렌드인 현실에서 모든 사람들의 생애에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많아지고 있다. 대학생들의 진로 설계에 있어서도 더욱 이러한 변화를 많이 접하게 될 것이며 스스로 계획을 세웠더라도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여지가 많아질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변수들이 진로 선택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역할 모델들이 보여 준 특징과 역량들을 대학생들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보다 많은 경험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실행을 독려하여 진취적인 진로설계의 자세를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 의의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이전의 직업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경력을 선택하는 것은 꾸준히 준비하고 계획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기치 않던 우연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역할 모델들이 지금의 기업을 시작하게 된 시점이나 일을 실행해 나간 과정을 살펴보면 다양한 우연적인 사건이나 상황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역할 모델들의 주도성을 만나 새로운 기회가 되어 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역할 모델들이 이루어낸 현재의 경력 성공은 우연요인을 기회로 만든 개인들의 역량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이 명확히 확인되었다. 이들은 기업의 리더 위치에 있는 인물들이니 만큼 기존의 이론에서 모호했던 우연을 기회로 만든 역량들이 보다 확고하게 드러났다. 따라서 우연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 개인이 갖추어야 할 역량요소들을 대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소중한 기초 자료를 확보 할 수 있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역할 모델들이 가장 많이 강조한 것이 사회적 시선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한국의 대학생들은 주변의 시선이나 가족과 친지의 관심 때문에 자신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선불리 실행하지 못한다. 대학생들이 보다 독립적인 관점과 태도로 자신의 삶의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 시스템이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10명의 청년 기업가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모두 남성 기업가이므로 남녀 대학생 모두에게 유용한 연구 대상 선정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향후 후속 연구 시 적절한 남녀 성비 균형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선정된 기업가들의 사업 영역이 최근 비즈니스 트렌드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연구대상의 대표성에 제한점이 될 수 있다. 또한 질적 연구의 합의 절차과정의 결핍이 있을 수 있다. 추후에는 이러한 제한점들을 보완한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병숙 (2006). 청소년의 진로대리학습을 위한 역사적 인물조사 및 진로대리학습모형. 직업교육연구, 25(3), 135-162.
- 김영경 (2008). 대학신입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4), 1191-1210.
- 김재원 (2002). 대학생의 역할 모델에 관한 연구. 경제교육연구, 9, 163-192.
- 김창민, 강희양, 김동원, 이난, 이혼정, 정필영, 최혜란 (2011). 대학생과 리더십. 서울: 홍릉과학출판사.
- 도승이 (2009). 여성공학도의 역할모델과 성역할기대, 학업동기, 진로동기 간의 구조적 관계. 교육심리연구, 23(4), 769-785.
- 박수길, 이영희 (2002). 한국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변인과 개인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1), 141-160.
- 박선희, 박현주 (2009).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대처 방식이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6(1), 67-81.
- 박희인, 구자경 (2011). 전공-적성 불일치로 인해 전공만족도가 낮은 대학생들의 진로문제에 대한 함의적 질적 연구. 진로교육연구, 24(4), 173-190.
- 박현영 (2011). 진로결정에 있어서 우연적 사건의 역할: 진로적응성을 매개효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귀희 (2011). 사회적 기업가정신개념 구성에 관한 연구: 구조방정식 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5(2), 199-227.
- 손은령 (2009). 진로선택과정에서 우연 혹은 기회의 역할 고찰. 상담학연구, 10(1), 385-397.
- 손은령 (2012). 직업 성취과정에서 미치는 우연 혹은 기회의 영향: 40대 여성 진로상담전문가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3(2), 437-453.
- 송병국 (1998). 성인노동자의 직업선택과정에서 우연적 요인이 미친 영향 분석. 한국농업교육학회지, 30(4), 65-88.
- 신순옥, 박서연, 이상희 (2015). 진로결정 과정에서 우연 경험연구: 전환 국면이 있는 코칭 및 상담분야 종사자를 중심으로. 복지상담교육연구, 4(1), 1-27.
- 서동철 (2014). 대학생의 롤모델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 자신감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선혜연, 김계현 (2008). 청소년 진로의사 결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특성에 따른 부모의 관여방식차이. 아시아교육연구, 9(2), 161-179.

대학생의 진로선택을 위한 역할 모델의 우연 경험 연구: 청년 기업가의 경력 성공과정을 중심으로

- 선혜연, 이제경, 김선경 (2012). 진로미결정 대학생의 진로고민 내용 및 원인과 결과. *아시아 교육연구*, 13(2), 1-24.
- 안나영 (2004). 대학생이 지각한 성공한 직업인의 요인과 직업포부 분석.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윤정, 오현주 (2012). 직업상담사의 직업선택과정에서 계획된 우연의 역할. *진로교육연구*, 25(4), 117-140.
- 안진아 (2008). 역할모델 및 다중역할계획에 대한 태도와 진로포부의 관계: 여대생을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기학 (2003). 대학생의 생물학적 성과 성역할 정체감의 일치 여부에 따른 진로태도 성숙과 진로결정 장애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2), 353-366.
- 이동혁, 황윤미, 정지희 (2012). Krumboltz의 우연학습이론을 배경으로 한 과제접근기술. *상담학연구*, 13(2), 855-875.
- 이상희, 신상수 (2012). 진로선택에서의 우연요인에 대한 대학생의 개념도 분석. *인간이해*, 33(1), 1-20.
- 이수지 (2012). 창업참여도가 메시지 평가와 자기효능감 및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청년 대학생의 롤 모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제경, 문승규, 김현진, 염미영 (2009). 대학에서의 학사경고 예방을 위한 대학적응 및 경력 설계 프로그램 개발. 서울: 한국기술교육대학교대학원연구프로젝트보고서.
- 임은미 (2011). 대학생의 진로결정 과정과 개입요인 탐색. *상담학연구*, 12(2), 447-466.
- 진주형, 박병진 (2014). 역할모델 노출이 청년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창업태도, 주관적 규범,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 36(4), 101-123.
- 장미화, 임현술, 최원상 (2005). 일개 대학교의 학생상담센터를 이용한 상담 내용 및 만족도에 관한 조사. *동국의학*, 12(1), 19-27.
- 장원섭, 김지영 (2013). 명장의 길: 우연에서 필연으로. *진로교육연구*, 26(3), 23-41.
- 정명희 (2010). 기독교대학 재학생의 역할모델에 관한 연구. *고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상근, 장주희, 윤수린 (2013). 신생직업 개척자의 경력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기본연구.
- 황현덕 (2011). 계획된 우연성이 고등학생의 진로탐색에 미치는 조절효과 검증고려.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 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asow, S. A., & Howe, K. G. (1979). Model influence on career choices of college students. *The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27, 239-243.

- Baumgardner, S. R. (1977). Vocational planning: the great swindle.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56*(1), 17-22.
- Blustein, D., Phillips, M., Jobin-Davis, M., Finkelberg, S., & Roarke, A. (1997). A theory-building investigation of the school-to-work transition.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5*, 364-401.
- Bright, J. E. H., Pryor, R. G. L., & Harpham, L. (2005). The role of chance events in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6*(3), 561-576.
- Budescu, D. V., & Bruderman, M. (1995).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llusion of control and the desirability bias. *Journal of Behavioral Decision Making, 8*(2), 109-125.
- Bygrave, W. D. (2004). The entrepreneurial process. In W. D. Bygrave & A. Zacharakis (Eds.). *The portable MBA in entrepreneurship*. Hoboken, NJ: John Wiley & Sons.
- Caplow, T., & Raymond, J. J. (1954). Factors Influencing the selection of pharmaceutical products. *Journal of Marketing, 19*(1), 18-23.
- Erkut, S., & Mokros, J. R. (1984). Professors as models and mentors for college students.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21*, 399-417.
- Florida, R. (2005). *Cities and the Creative Class, Routledge*. (이원호, 이종호, 서민철 공역. 도시와 창조계급). 서울: 푸른길.
- Gati, I., Krausz, M., & Osipow, S. H. (1996). A taxonomy of difficulties in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 510-526.
- Gibson, D. E. (2004). Role models in career development: New directions for theory and resear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5*, 134 - 156.
- Ginzberg, E. (1972). Toward a theory of occupational choice: A restatement.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20*, 169-176.
- Glesne, C. (1999). *Becoming qualitative researchers: An Introduction*. White Plains, NY: Longman.
- Hackett, G., & Betz, N. E. (1981).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 326-339.
- Hackett, G., & Byars, A. M. (1996). Social cognitive theory and the career development of african american women.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4*, 322-340.
- Hart, D. H., Raynor, K., & Christensen, E. R. (1971). Planing preparation and chance in occupational entr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3), 279-285.
- Helm, S., & Andersson, F. O. (2010). Beyond taxonomy: An empirical validation of social entrepreneurship in the nonprofit sector. *Nonprofit Management & Leadership, 20*(3), 259-276.



- Hill, C. E., Thompson, B. J., & Williams, E. (1997). A guide to conducting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5*(4), 517-572.
- Hill, C. E., Thompson, B. J., & Hess, S. A., Know, S., Williams, E. N., & Ladany, N. (2005).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An updat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2), 196-205.
- Holland, J. L., & Holland, J. E. (1977). Vocational indecision: More evidence and specul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4*, 404-414.
- Karunanayake, D., & Nauta, M. M. (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race and students' identified career role models and perceived role model influence.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2*, 225-234.
- Krumboltz, J. D. (1996). A learning theory of career counseling. In M. L. Savickas & W. B. Walsh (Eds), *Handbook of career counseling theory and practice*. CA: Davies-Black Publishing.
- Krumboltz, J. D., & Levin, A. S. (2004). *Luck is no accident*. Atascadero. CA: Impact Publishers.
- Krumboltz, J. D. (2009). The happenstance learning the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7*(2), 135-154.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 79-122.
- Lockwood, P., & Kunda, Z. (1999). Increasing the salience of one's best selves can undermine inspiration by outstanding role mode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2), 214-228.
- Mitchell, K. E., Levin, A. S., & Krumboltz, J. D. (1999). Planned happenstance: Constructing unexpected career opportunitie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7*(2), 115-123.
- Miller, M. J. (1983). The role of happenstance in career choice. *The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32*(1), 16-20.
- Nauta, M. M., Epperson, D. L., & Kahn, J. H. (1998). A multiple groups analysis of predictors of career aspirations among women in science and engineer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 483-496.
- Nauta, M. M., & Kokaly, M. L. (2001). Assessing role model influences on students' academic and vocational decision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9*(1), 81-99.
- Newman, B. K. (1995). Career change for those over 40: Critical issues and insights. *The*

-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4(1), 64-66.
- Osipow, S. H. (1990). Convergence in theories of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Review and prospec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6(2), 122-131.
- Pleiss, M. K., & Feldhusen, J. F. (1995). Mentors, role models, and heroes in the lives of gifted children. *Educational Psychologist*, 30, 159-169.
- Quimby, J. L., & DeSantis, A. M. (2006). The influence of role models on women's career choice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4(4), 297-306.
- Radu, M., & Redien-Colloot, R. (2008). The social representation of entrepreneurs in the french press desirable and feasible models?. *International Small Business Journal*, 26(3), 259-298.
- Salomone, P. R., & Slaney, R. B. (1981). The influence of chance and contingency factors on the vocational choice process of nonprofessional worker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9(1), 25-35.
- Scherer, R. F., Brodzinski, J. D., & Wiebe, F. A. (1991). Assessing perception of career role-model performance: The self-employed parent. *Perceptual and Motor Skills*, 72(2), 555-560.
- Sennett, R. (2009). *The Craftsman*. Yale University Press. (김홍식 역. 장인). 서울: 21세기 북스.
- Sharf, R. S. (2006). *Apply career development theory to counseling (4th ed)*. (이재창, 조봉환, 안희정, 황미구, 임경희, 박미진, 김진희, 최정인, 김수리 공역. 진로발달이론을 적용한 진로상담).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Super, D. E. (1953). A theory of vocational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8, 185-190.
- Williams, E. N., Soeprapto, E., Like, K., Touradji, P., Hess, S., & Hill, C. E. (1998). Perceptions of serendipity: Careerpaths of prominent academic women in counseling psychology. *Journal Counseling Psychology*, 45(4), 379-389.

## **A Study on Happenstance Experience of a Role Model for a College Student's Career Choice: with Focus on Youth Entrepreneurs' Career Success Process**

Iem Yun Seo

Dongguk University

This study inquired into the happenstance experience in career choice, and in the process of performance targeting a young role model who achieved a vocational success in business areas, in which college students have the most interest. To this end, this study tried to get in-depth, profound data on happenstance experience of young entrepreneurs using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CQR).

For this research , this study selected 10 young entrepreneurs in their 20s to early 40s as research participant. The research result showed that role models chose new careers and have gotten a wide variety of experiences up to their present success. Although they have suffered many hardships in career switch process,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y were able to overcome them with individual capability and self-initiated preparation as well as execution through this process.

Also, they were found to aggressively display their initiative through the career switch, and success-making process, and to have very high satisfaction with, and pride in their own choice. In addition, the respondents encouraged college students' challenge spirit so that they could encounter unexpected happenstance by experiencing diverse things instead of settling for a safe career, or being bound by social eyes through the introspection into the happenstance, which the respondents themselves experienced.

*Key word: Role Model, Career Switch, Happenstance Theory, College Students Career, Start-up*

